

開放大學, 이대로 좋은가

姜 容 植

(大田工業大學長)

1

工業化된 현실 사회에 전문 고급 인력을 공급하고,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 아래 이 나라에 ‘開放大學’이라는 성격의 大學이 설치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이 開放大學이 당시의 타당성 있는 설치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또한 누적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점이 표면화된 것은 1987년 가을 全國 開放大學 체제 대학생들의 격렬한 시위에서 비롯된다. 시위 결과 1988년 3월 1일부터 全國 6개 開放大學들의 校名이 각각 大田工業大學, 서울産業大學, 釜山工業大學, 光州經商大學, 慶北産業大學, 全北産業大學 등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校名의 단순한 개칭만으로 開放大學이 안고 있는 누적된 問題點들이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開放大學이라는 校名뿐만 아니라 교육 제도, 설치 기준령, 교육 여건과 시설, 학생들의 자긍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開放大學, 이대로 좋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검토하고 넘어 갈 필요성이 절실히 된다. 따라서 본고는 開放大學이 거듭나기 위한 문제점 제기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開放大學 발전을 위해 策者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2

‘開放大學’이란 명칭은 당초부터 잘못 붙여졌다. 이는 원래 英國에서 放送通信大學의 성격을 지닌 ‘Open University’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때, 이를 ‘開放大學’으로 잘못 쓰게 된 것이다. 개방이란 어의와

어감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 일반대학과 개방대학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開放大學’이라는 어감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누구나 다 들어와 필요에 따라 학습을 받고, 어느 정도의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는다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開放大學은 엄격한 자체적인 入試와 학사 관리, 규정된 교과과정과 학점 이수, 졸업 시험 등 일반대학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開放大學’이라는 어감 때문에 一般人뿐만 아니라 심지어 開放大學의 교직원, 학생들까지도 開放大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開放大學 學生들의 격렬한 시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대학은 무엇이며, 개방대학은 무엇이란 말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대학들이 지니고 있는 폐쇄성에 대하여 어느

교육 철학자는 일체의 잔재라고 표현한 일이 있다. 이 말은 西歐의 대부분의 大學들은 國民의 平生敎育 차원에서 開放大學에 가까운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一般大學들은 불필요한 권위주의, 폐쇄성 등으로 그 우위성을 주장하려는 데에 대한 지적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흔히 敎育을 百年之大計라고 칭한다. 따라서 교육 당국에서 진실로 平生敎育 政策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一般大學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방 체제의 장점을 살려 새롭게 교육 제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 당국은 平生敎育이라는 미명 아래 일반대학은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점을 開放大學에 떠맡긴 꼴이 되었다. 그 결과 開放大學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고 말았다. 學校名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敎育法上에는 '開放'이란 말이 그대로 남아 있다. 敎育法을 속히 개정하여 開放大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開放大學의 入學制度에도 問題點이 노정된다. 현재 開放大學은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야간부에는 產業體에 근무하는 학생이 많으나 주간에는 產業體 근무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 결과로 高等學校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먼저 들어와 공부하면서 후에 산업체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入學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 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산업체 근무 경력을 입학 조건에 명시한 점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입학 조건으로 產業體 근무 경력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다만 야간의 경우에만 산업체 근무자를 우대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

주간 大學의 경우에는 一般大學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工業化된 현실 사회에 적응할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여 배출하였다. 그러나 開放大學이 4년제로 바뀐 이 시점에서는 一般大學이 가지는 교육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개방대학은 과거 開放大學이 지닌 전문화된 기능인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一般大學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교양과정의 실시와 진리 탐구를 위해 '研究'와 '敎授' 등의 본연적인 대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開放大學의 모습은 현실 사회의 요구에 충분히 대처할 직업인과 기술인을 양성하면서도 대학 본래의 고유한 진리 탐구의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 즉 이상적인 인격 도야와 능률적인 전문 직업인의 양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開放大學의 실정은 어떠한가? 開放大學 시설 기준령은 4년제 대학이면서도 실체는 專門大學 기준령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가? 4년제 대학으로 체제가 바뀐 이상 시설, 교과과정, 교수 정원 등의 문제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開放

大學의 교육 제도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敎授定員에 있어서도 一般大學의 경우 학과 단위당 9명인 데 비하여, 開放 체제 대학의 경우는 주·야간 합하여 5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대학 과정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연구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닦는 과정에서 그쳐야 한다.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大學院 과정이다. 평생교육을 주장하면서도 학부과정에만 문을 열고 그 이상의 과정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은 도순된 처사다. 開放 체제를 고수한다면, 碩·博士學位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80년대에 급격한 대학 정원의 증가와 대학 시설의 빈곤, 교수 부족 현상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대학들의 문제가 開放體制의 大學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같은 국립 4년제 대학이지만 開放體制 대학들의 교육적 여건이 특히 열세를 면치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교육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 때문일 것이다. 왜 一般大學과 開放體制 大學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가? 이러한 편견은 한국 교육의 병폐이기도 하다. 교육적 여건이 一般大學보다 현저하게 나쁘기 때문에 開放體制 大學의 在學生들까지도 열등감을 가지고 학교에 다닌다.

이러한 교육 제도로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3

지금까지 開放體制의 大學이 지닌 問題點의 몇 가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開放體制 大學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간은 일반대학화하고 야간은 문호를 넓혀 산업체 근무자를 우대하는 체제로 변형되어야 한다.

둘째, 開放大學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시설 기준령은 일반 4년제 대학에 준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상 보편적인 교양교육과 진리 탐구의 본연적인 대학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 교수의 정원을 一般大學과 마찬가지로 학과 단위당 9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學校의 개방성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국민이 고급의 학문을 연구할 수 있게 大學院 碩·博士課程이 설치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법상 '開放'이라는 표현을 바꾸어 一般人的 開放體制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개선책과 더불어 좀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開放大學體制가 가지는 근본 이념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목표상 바람직한 것이었다. 그러나 開放大學을 처음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제도상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하루 속히 시정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의 모든 大學은

開放體制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한국의 교육적 풍토와 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一般大學의 모든 시설도 產業體 근무자들에게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같이 開放體制 大學에 產業體 근무자만 입학을 허용한다면, 대개 산업체 근무자들은 주간에 근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주간대학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일반대학에도 유휴 시설의 능률적 사용 차원에서 야간에 산업체 근무자들을 수용하는 교육적 문호를 확충함으로써 어느 특정 대학에게만 부여된 특수성을 탈피하고 모든 일반대학이 지역 사회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